



해외 기후중립 실행계획 수립 사례와 정책제언

박경문 수원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
kmpark23@suwon.re.kr

요약

I 해외 기후중립 실행계획 수립 특성 및 시사점

구분	시카고 (기후행동계획)	암스테르담 (2050 기후중립 로드맵)
수립배경	-1995년 기후재난(폭염)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가 기후행동계획 수립을 촉발	-장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후중립도시 공감대 형성
계획특성	-기후취약지역 중심에서 기후중립도시를 위한 종합적인 관점의 실행계획 수립	-에너지 체계 전환(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중심 기후중립계획 수립
감축목표	-1990년 대비 2040년 62%, 2050년 80% 감축	-1990년 대비 2030년 55%, 2050년 95% 감축
실행전략	-5개 부문, 51개 실행계획 마련	-4개 부문, 14개 실행전략 마련
시사점	-실행계획별 중요도 도출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적인 수단 마련 -녹색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학-연 간 협업체계 구축	-핵심감축 부문 공간전략 마련 -계획수립 전·후 모두 시민참여가 가능한 방안 마련(플랫폼 구축 등)

정책제언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감축사업별 감축효과·추진가능성을 고려한 중요도를 제시하고 이행평가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률 제고
 -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기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선정
- 건물 부문 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송부문에 대한 공간 구상 및 전략 마련
 - 공간정보데이터(GIS) 분석을 통한 감축사업별 적용 가능지역 도출 및 공간 구상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시민참여 창구 및 시민 주도 기후행동 플랫폼 마련
 -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시민참여 방식 이행평가 도입 및 시민 주도 탄소중립행동/사업 참여 플랫폼 구축 운영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RE100을 통해 고탄소 업종 근로자 지원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수익금을 고탄소 업종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활용

1 국내외 기후중립 실행계획 추진 현황

- 파리협약(2015년)¹⁾ 이행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기후중립·탄소중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이 활발히 추진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파리협약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법제화 하고, 기후중립 또는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수립
 - * 기후중립계획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까지를 포괄하는 계획으로 해외에서는 기후중립계획을 법정계획의 용어로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탄소중립계획으로 명명되고 있음
 - 2023년말 기준, 전 세계 40개국 2,351개의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우리나라는 2021년, 신기후체제²⁾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실행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
 -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2050년 탄소중립,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법제화(법 제8조)
 -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제7조에 따라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
- 수원시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중
 -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의거 2025년 4월까지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야함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수립
 - 기존 수립되었던 “제3차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2023)”의 보완계획이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 예정

<세계 주요도시들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 및 실행계획>

구분	내용	비고
뉴욕	- 2005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생략) 40% 감축, 2050년 80% 감축 - 건물, 에너지, 수송 및 폐기물 부문에 중점을 둔 계획 수립 및 이행	-
시카고	- 1990년 대비 2030년 62% 감축, 2050년 80% 감축 -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기후적응 분야 등 51개 실행계획 추진	사례 고찰 대상 도시
암스테르담	- 1990년 대비 2030년 55% 감축, 2050년 95% 감축 - 건물환경, 수송, 전력, 항만 및 산업 등 4개 부문 16개 실행전략 추진	
런던	- 203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 대기질, 녹색 인프라,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적응, 소음, 순환경제 등을 포함한 탄소배출 제로 계획 수립	-
파리	- 2050년까지 직접배출량 100% 감축, 간접배출량 2004년 대비 80% 감축목표 - 교통 및 수송, 에너지, 폐기물관리, 식량, 수자원 등의 분야에 대한 500개 실행계획 마련	-
도쿄	- 2000년 대비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 에너지, 건물, 수송, 자원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 참여 및 통합 등 6개 분야에 14개 정책 마련	-
코펜하겐	- 세계 최초 2025년 탄소중립 도시 선언	-
수원	- 2018년 대비 2030년 40% 이상 감축, 2050년 탄소중립 -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중(25.4.수립 예정)	-

[자료 : 서울시(2024),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p.25, 저자 재정리]

- 1) 파리협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한 합의
- 2) ‘신기후체제’란 기존의 기후체제였던 교토(의정서)체제가 2020년에 끝나고,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체제를 일컫음

2 기후중립 실행계획 수립 사례

- 시카고와 암스테르담의 기후중립 실행계획은 국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내용적·구성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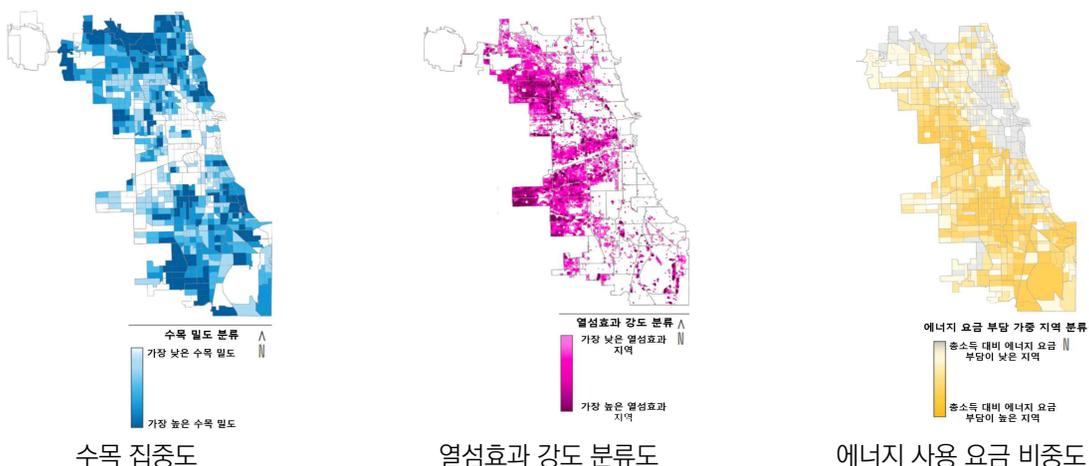
<사례 시사점>

구분	내용
유사점	-국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내용적·구성적 측면에서 유사 -(계획의 구성 및 절차)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탄소저감 목표설정→감축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체계 구축 -(내용적 측면) 탄소배출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 사업(흡수원 조성 등)으로 구성
차별성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추진 -(시카고) 실행계획별 중요도 도출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 마련, 실행계획 추진과 동시에 녹색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학-연 간 협업체계 구축 -(암스테르담) 공간구상 및 전략 마련을 통해 감축사업 추진의 구체화·현실화 도모, 계획 수립 후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 미국 시카고市の ‘기후행동계획(Chicago Climate Action Plan)’

- 기후변화 대응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 기후중립도시를 논의
 - (기후재난 발생) 시카고市는 1995년 7월, 폭염이 지속되면서 739명이 사망했던 비극적인 역사가 있음
 - 희생자 중 다수는 노인저소득층흑인 등으로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가 부족한 동네의 환기 및 에어컨이 없는 아파트에 거주
 - 기후위기 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된 진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
 - (기후변화 시나리오) 현재의 탄소배출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화씨 100도(섭씨 37.8도)가 넘는 날이 연중 30일 이상 발생 예측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수립의 필요성 제시
 - (기후중립 논의) 기존 기후위기 취약지역 중심의 소극적인 대응방식이 아닌 적극적·종합적 기후변화 대응계획 필요성 논의
 - ‘기후행동계획’ 수립 이전에는 녹지 분포, 극한 기상(폭염, 한파 등) 취약지역, 에너지 비효율 주택 분포(에너지 비용 고부담 가구 분포) 등의 공간정보*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지역 중심의 대응방안 추진
- *: 수목의 분포가 낮은 지역이며, 열섬효과에 더욱 노출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 중 총 가구 소득의 6% 이상을 에너지 사용 요금에 지출하고 있는 지역을 기후위기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

<시카고의 기후위기 취약지역 파악을 위해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



자료 : 2022 CHICAGO CLIMATE ACTION PLAN(City of Chicago, 2022),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재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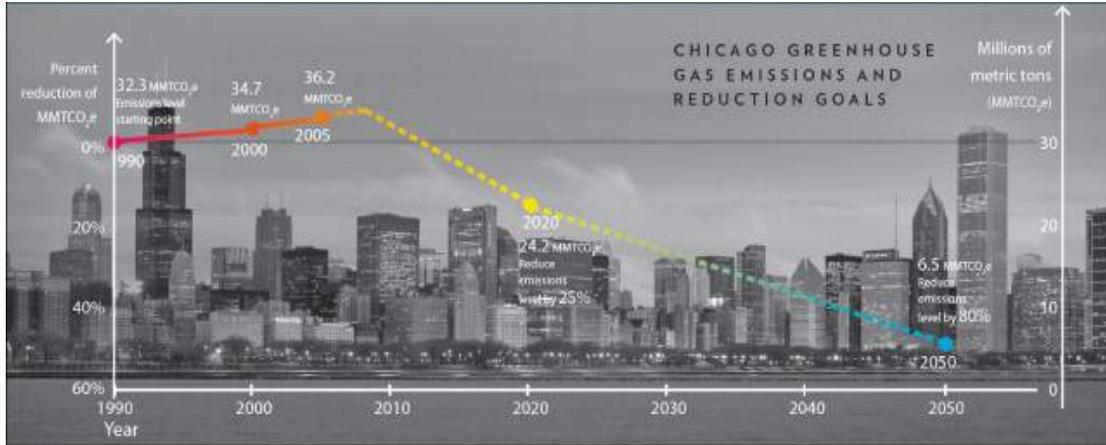
○ 기후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기후행동계획(~2050)’ 수립

- (계획의 수립) 2020년 최초 기후행동계획 수립, 2022년 변경계획 수립

- 기존의 기후위기 취약지역 대응을 넘는 전 방위적 기후변화 대응 관련 종합계획이자 실행계획으로 수립
- 침수, 교통체계 교란, 오·폐수 역류 및 수로 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극한 호우 및 한파, 미시간 호수의 수위 상승 등을 추가적인 기후위험 요인으로 고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25%, 2040년 62%, 2050년 80% 감축

<시카고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자료 : 시카고 기후행동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Chicago Climate Action 홈페이지, 2024.09.23., 검색)]

- (주요 전략)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ion)으로 구분하여 추진

- (완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청정·재생에너지원 확대,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친화적인 교통인프라 정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 추진
- (적응) 극한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온·냉방 시설관리, 대기질 및 수질 관리, 녹지 확보 등을 추진

- (실행계획 추진방안) 실행계획은 5대 분야, 14개 부문, 51개로 구성되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한 중요도를 설정(3단계 구분)하여 정책 추진 우선순위 고려

<시카고 기후중립 행동 실행계획 내용_일부 예시(14개 부문 내 각 1개 실행계획 예시)>

구분	실행계획	평가지표	중요도	
지역사회 에너지 절약 및 재생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건물 개조	4세대 이하의 주거용 건물 개조 :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저소득층 가구 우선	개조된 건물 비율	◆◆◆
	커뮤니티 재생에너지 설치 증대	2025년까지 커뮤니티 공동소유 태양광 5MW(메가와트) 설치	설치 용량	◆◆◇
자원 순환 및 순환 경제	폐기물 및 매립 감소	2030년까지 상업 및 산업 폐기물 90% 재활용	재활용 비율	◆◆◆
친환경 수송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전체 이동수요 45%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전환	非 자가용 이용 비율	◆◆◆
	대중교통 중심 개발	2024년까지 대중교통 통근자 인센티브 확대	통근자 증가 비율	◆◆◇
	친환경차 보급 확대	2035년까지 배송차의 100% 친환경차 전환	보급 비율	◆◆◆
에너지 체계 전환	청정·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30년까지 시 부지에 30MW(메가와트) 의 청정·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실시	설치 용량	◆◆◇
	전기차 충전소 확보	2035년까지 2,500개소의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설치 개소	◆◆◇
	건축 법규 제·개정	2040년까지 탄소중립 건축물 건설 규정 마련	제·개정일	◆◆◆
	화석발전 전환	2024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소 전환 추진	폐쇄일	◆◆◆
	에너지 소비량 감소 및 저장	2030년까지 1,000MW(메가와트) , 2040년까지 3,000MW(메가와트) 의 새로운 에너지 수요 감소 장려	수요 감소량	◆◆◆
지역사회 강화 및 건강 보호	데이터 수집	2025년까지 실외 공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시설 설치 개수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2022년까지 청정·재생에너지 전환 지표 발간	보고서 발간일	◆◆◇
	커뮤니티 복원력 지원	2022년까지 커뮤니티 주도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투입 금액	◆◆◇

[자료 : City of Chicago(2022)]

- (시민참여) 시카고 내 전체 78개 커뮤니티 중 71개 커뮤니티, 거주자 2,145명이 계획수립에 참여('21.9~'22.4 활동)
 - (참여내용) 시카고 기후행동계획 워킹그룹 결성('21.9.) → 시-워킹그룹 자매결연('21.11~12.) → 타운홀 미팅('22.1.) → 공청회('22.2.~3.) → 기후행동계획 수립('22.4.)
 - (시민의견 주요 키워드) 기후,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흡수원 조성, 빌딩, 자원순환 등
- (협업)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영역의 실행계획과 연관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요 연구소들과 협력
 - 도시경제개발센터(Center on Urban Economic Development), 위스콘신 전략센터(Center on Wisconsin Strategy), 모두를 위한 녹색(Green for All) 등 연구소들과 협력 중
- (재정) 기후행동계획 추진을 위해 1.88억 달러(한화 약 1조 4,688억 원) 투입 예정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の '2050 기후중립 로드맵(Roadmap: Climate Neutral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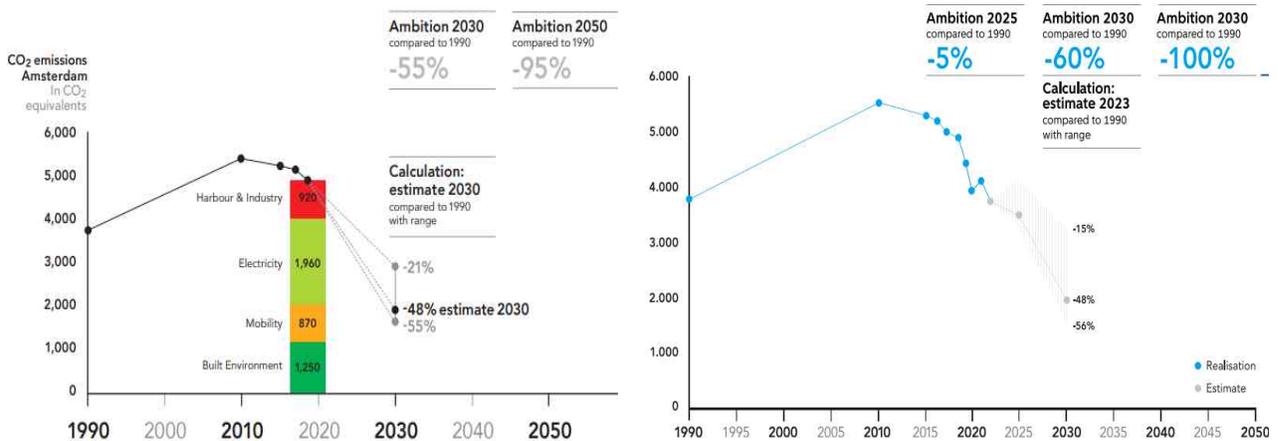
○ 기후위기 예측결과에 따른 기후중립 공감대 형성

- (기후변화 예측) 2050년 기상예측 결과, 2019년 대비 평균 온도 3.0℃ 증가, 열대야일수 20일(기존 7일), 강우량 6% 이상, 해수면 85cm 이상 증가
 - 해수면 상승으로 난방에너지 공급시설이 잠겨 최소 35,000가구 및 기업이 한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
 - (기후중립 공감) 기후위기 예측결과는 도시 내 모든 주체의 기후중립 공감대 형성과 참여에 영향을 줌
 - (공공) 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기후중립 정책 수립 구상
 - (시민) 시의 에너지 체계 전환 정책의 강력한 지원자*로 참여
- * 에너지 체계 전환정책 시민 인식(2019년 조사): 긍정(75%), 중립(14%), 부정(9%), 모름(2%)

○ 기후중립 선언: 2050 기후중립 로드맵 수립

- (계획의 수립) 2019년, 에너지 체계 전환 중심(화석 연료 → 재생에너지)의 '기후중립 로드맵' 수립
- (탄소저감 목표) 1990년 대비 2030년 55%, 2050년 95% 저감
- (이행점검) 매년도 탄소배출량 및 감축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 이행달성 실적을 토대로 2030년 및 2050년 목표 재설정(예: 2030년 목표 55% → 60% 상향)

<탄소배출 감축 목표량 변화>



|주 1: (좌) 2050 기후중립 로드맵 수립 시(2019년)의 감축목표량

|주 2: (우) 이행점검(2022년 대상) 후의 감축목표량 변경(2030년 기존 55%→60%, 2050년 95%→100% 상향)

|자료: City of Amsterdam(좌: 2020, 우: 2023)

- (주요 전략) 건물환경, 수송, 전력, 항만 및 산업 등 4개 부문, 16개 실행전략으로 구분하여 추진

<‘2050 기후중립 로드맵’의 부문별 실행전략>

건물환경	수송	전력	항만 및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단계적 퇴출 · 지속가능한 열 공급 체계 구축 · 천연가스 없는 난방인프라 구축 · 에너지효율 주거환경 조성 · 상업·업무 빌딩 에너지 효율 향상 ·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 에너지 중립 공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 유발 운송수단 규제 · 차량·선박 등 운송수단 친환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에너지 생산 극대화를 위한 건물 지붕 활용 · 풍력에너지 사용 최적화 · 미래지향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구지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 녹색 수소 경제 개발 ·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CCUS) ·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약

[자료: Roadmap: Amsterdam Climate Neutral 2050

- (공간전략 마련) 건물환경, 전력, 수송 부문의 경우 일부 실행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간 구상 및 전략 제시

- (건물환경) ① 천연가스로부터 자유로운 건축 환경 조성 지역*, ② 에너지효율 건축물 조성 확대지역, ③ 신개발지역의 에너지중립 건축 환경 조성 지역 선정 등

* 천연가스로부터 자유로운 주택 보급을 위한 마을 단위 추진 단계별 공간 구상

- (전력) 태양 및 풍력발전 설치지역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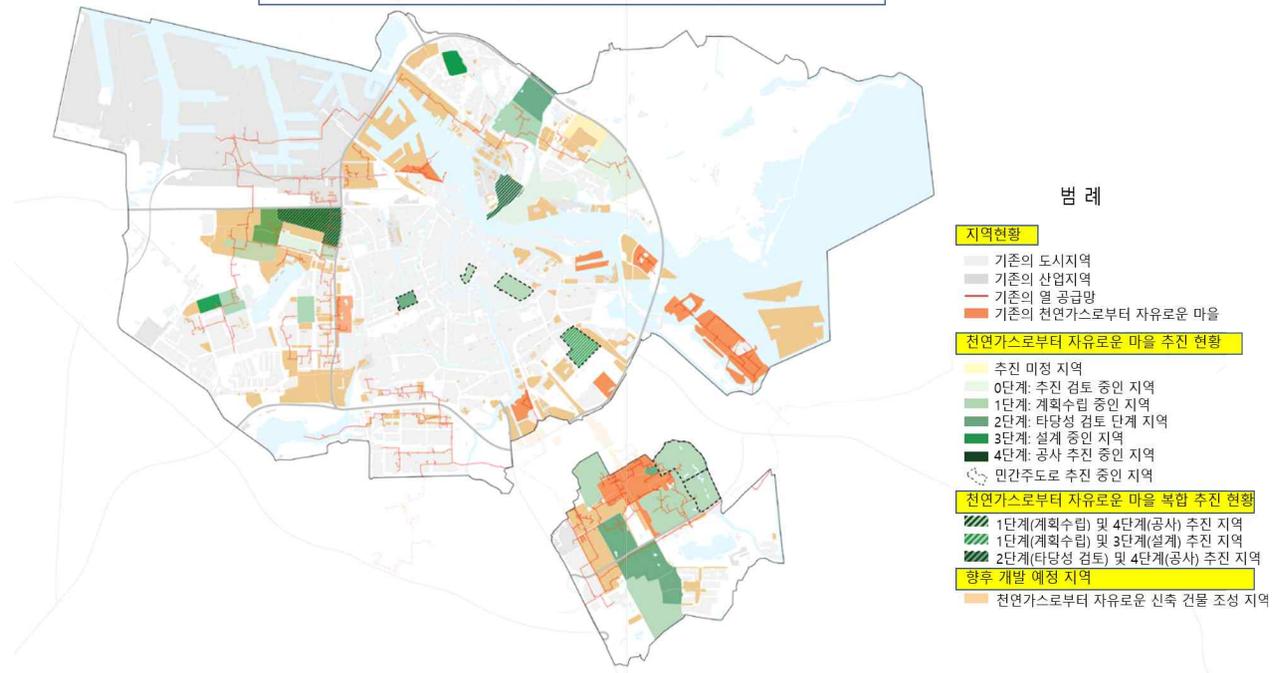
*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을 위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설치 공간 구상

- (수송) 탄소 무배출 지역 설정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지역 선정

* 화석연료차량 통행 규제 구역, 운송수단 무탄소 배출구역(2025년 A10 순환도로 내, 2030년 암스테르담 전체), 전기차 충전소 및 공유자동차 주차장 설치지역 공간 구상

<건물환경 부문 공간전략>

천연가스로부터 자유로운 주택 보급 확대 계획도
(‘20년 90천 세대 → ‘40년 650천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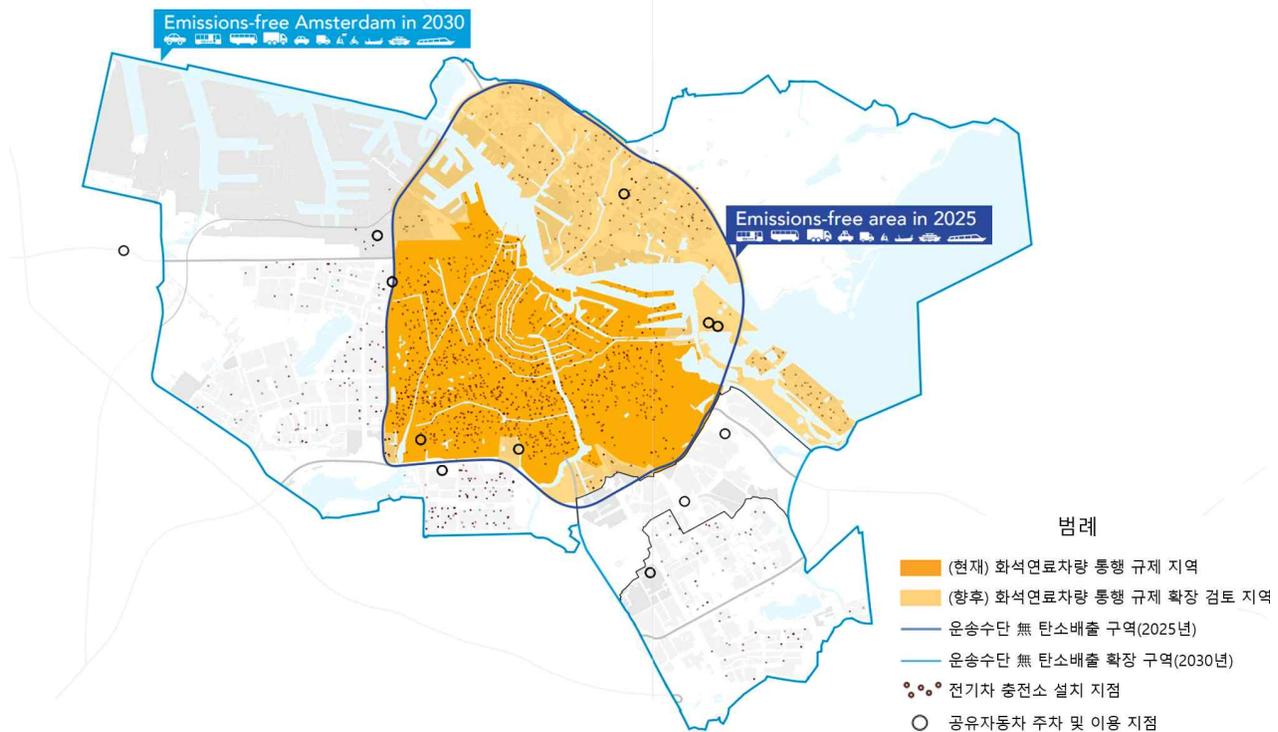
[자료: Roadmap: Amsterdam Climate Neutral 2050, pp.60-61.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재수정

<전력 부문 공간전략>



[자료: Roadmap: Amsterdam Climate Neutral 2050, pp.124-125.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재수정]

<수송 부문 공간전략>



[자료: Roadmap: Amsterdam Climate Neutral 2050, pp.106-107.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재수정]

- (시민참여 방법) 계획 수립 이전 '도시와의 대화' 참여, 계획 수립 이후, 플랫폼 참여
 - (도시와의 대화) 탄소중립 관련 1,000여개 내용 논의 → 180개 실행방안 도출 → 암스테르담 기후 합의 도출
 - (플랫폼) 시에서 개발한 '新암스테르담 기후 플랫폼' 내 탄소중립 프로젝트 업로드-공유-확산 참여체계 구축 등
- (기후정의) 기후중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 기반의 쇠퇴 산업 및 에너지 체계 전환에 따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재정) 2019년 2월, 암스테르담 시의회로부터 기후기금 1억 5천만 유로(한화 약 2,200억 원) 설립

3 정책 제언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감축사업별 감축효과·추진가능성을 고려한 중요도를 제시하여 이행평가 시 반영

-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5년 4월 수립 예정)”에 수록될 감축사업별 추진 중요도 도출
 - 시카고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사업별 추진 중요도를 도출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감축사업별 중요도 도출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분석 활용 검토
- 감축사업별 중요도 도출은 수원시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 제고에 활용
 - 2018년 대비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은 감축사업별 선택과 집중 전략이 매우 중요
 - 온실가스 감축 효과성, 예산투입 효율성, 추진 용이성 등을 고려한 중요도 도출로 감축사업 추진의 선택과 집중 전략 마련

□ 건물부문 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송부문에 대한 공간구상 및 전략 마련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내 건물 부문 중 공공건물대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같은 핵심사업의 공간구상 제시
- 수송부문 대중교통 확대 방안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같은 공간구상 제시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공간전략 예시도 참고
 - (검토가능 방법) 공간정보데이터(GIS) 기반의 지역여건 분석을 통한 감축사업별 적용 가능지역 도출 및 공간 구상
 -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건물부문 공간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가능 공공부지 도출 및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대상지 선정 (최석환 외 (2022) 참고)
 - (공간구상 고려사항) 감축효과, 지역 여건 및 현안 해소, 정책 추진 편의성 및 공편익(co-benefit) 등 고려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평가 시 시민참여 창구 마련 및 시민 주도 탄소중립행동/사업 참여 플랫폼 마련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시민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시민이 제안하는 감축사업을 반영하고, 계획 이행평가 시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

- 수원시민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시민참여사업, 기후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와 같은 자발적 시민의 기후행동 모임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공유플랫폼 마련 및 제안
 - 수원시 탄소중립 비전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의 구현모델 개발
 - 네덜란드 ‘新 암스테르담 기후(Nieuw Amsterdams Klimaat)’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개발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 플랫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정연구원 『SRI 정책Brief(2024년 제16호)』 참고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RE100을 통해 高탄소 업종 근로자 지원 기금 마련 및 녹색일자리 창출

- 수원시 고탄소 중소기업 업종 목록, 운영 현황 및 근로자 수 등의 데이터 구축 선행을 통한 사업 전환 및 직업 전환에 따른 지원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책 마련
 - 암스테르담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시설이 밀집한 항구지역 일대 에너지 전환 및 고탄소 업종 지원을 위한 기후기금을 할당(전체 1억 5천만 유로 중 5% 할당)
 - 시카고는 기후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新 산업으로서의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학-연 협업체계 구축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수익금은 기후변화대응기금으로 활용하여 高탄소 업종 쇠퇴로 인해 피해 받는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추진
 -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경기도 기본계획 내 계획된 사업) 등과 연계한 대응 프로그램 구상(강은하, 2024)

Ⅰ 참고문헌

강은하, 2024, 환경의 날, 기후위기 사회변화 대응전략, SRI 정책Brief 2024 제18호,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이정현, 2024, 수원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시사점, SRI 정책Brief 2024 제7호, 수원시정연구원
 박경문, 2024,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사례와 수원시 구축방향, SRI 정책Brief 제16호, 수원시정연구원
 서울시, 2024,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최석환, 2022, 빅데이터 기반의 수원시 격자형 공간분석 방안 연구: 건물에너지 격자형 공간분석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City of Amsterdam, 2020, Roadmap: Amsterdam Climate Neutral 2050
 City of Amsterdam, 2023, Climate Report 2023: Progress in reducing CO2 emissions in city
 City of Chicago, 2020, CHICAGO CLIMATE ACTION PLAN (2020)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2024년 9월 11일(수) 10시 | 더함파크 3층 대회의실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탄소업종 노동자와 기후변화대응 취약인원을 배제하지 않고, 동행한다는 취지에서 중요하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의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과제」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의 「기후불평등과 취약성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발표되었고, 탄소중립 실현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다.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



2024년 10월 25일(금) 13시 30분 | 일월수목원 히어리홀 대강당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가 일월수목원에서 개최되었다. 당일 세미나에는 수원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부시장,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위원회 및 시민과 수원시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센터가 개설된 수원시정연구원에서도 다수가 참석하여 활기를 띠었다. 프란치스카 브라이어 부시장(독일 프라이부르크), 강은하 센터장(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박찬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패널 및 플로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참석 전문가와 시민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탄소중립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상호 모니터링, 학생에 대한 탄소중립 교육의 의무화 등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향후 일정

2024년 주요 행사 계획

11월 ~ 12월 : 수원시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12월 : 수원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 워크숍(예정)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